

V+대동여지도 나 이 스 · 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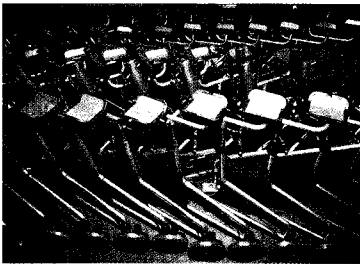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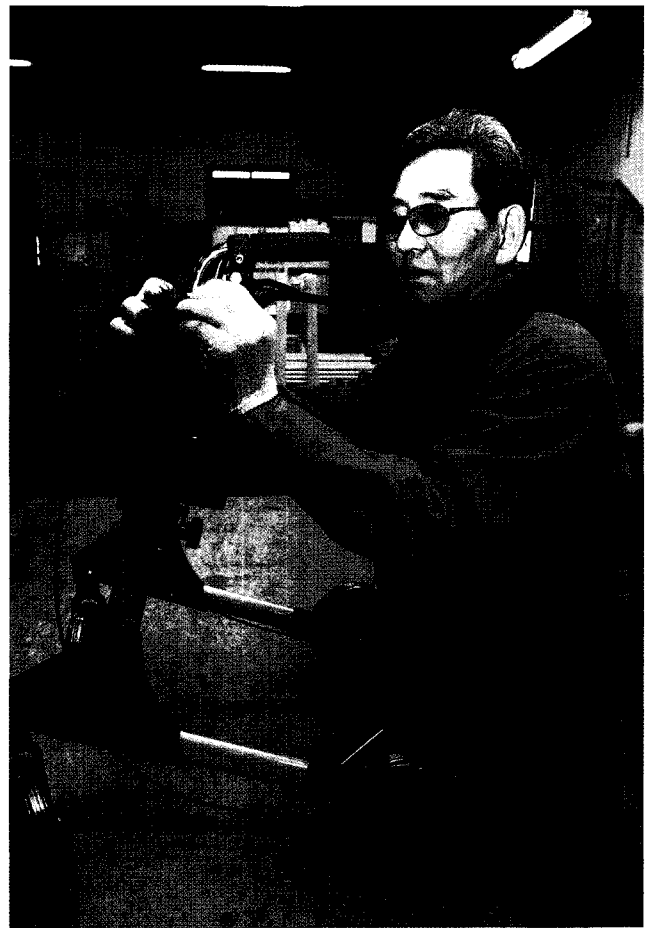
* 대한민국 곳곳의 강소벤처를 소개합니다.

'양심'과 '안전'을 파는 기업 나이스·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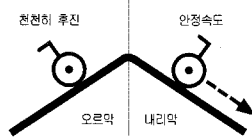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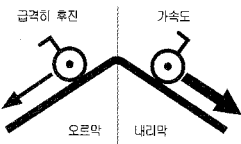
대구 시내의 한 오르막길,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이곳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보행 보조차를 잡고 오르내리고 있다. 걷기가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음에도 보행보조차에 의지한 채 멈춰 섰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하는 남자. 그가 바로 보행차, 보행보조차, 어닝(Awning) 프레임 전문기업 나이스·텍(www.nicetech.net)의 김성윤 대표다.

글_ 정유경 · 사진_ 장병국





후진속도저감 장치 자동브레이크 장치



타사 보행보조차

나이스워커 보행보조차

안전을 실고 움직이는 첨단 보행보조차, 나이스워커

“몇 년 전 유럽에 출장을 갔다가 공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행차를 이용해 편안하게 걷고, 한가롭게 보행보조차에 앉아서 계시기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저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

온 김성운 대표는 바로 보행차와 보행보조차 개발에 나섰다. 엔지니어 출신답게 별 무리 없이 보행차의 주원리를 파악했고, 곧 노약자가 사용하기 좋은 보행차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그가 보행차를 제작할 때 집중한 두 가지는 바로 ‘쉽고 안전한 보행차’다.

“걸기 어려운 노약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기구가 안전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단순하면서도 쉬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 낸 것이 국내최초로 특허를 받고 선보인 전자식 첨단 자동브레이크 장치와 후진속도저감 장치다. 첨단 자동브레이크 장치는 보행차가 사용자가 미는 힘의 세기나 바닥 경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 속도 이하로 움직여서 내리막길에서 빨리 굴러갈 염려가 없게 한다. 또한 후진속도저감 장치는 오르막길을 걷는 사용자를 보호한다.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갑자기 쉬어도 급격히 뒤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철저히 주사용자인 노인층의 입장에서 간단한 조작에도 신경을 썼다.

“어르신들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만 한번 누르면 주차가 되고, 잘 보이는 곳에 속도조절기를 달아서 굳이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뛰어난 기술에 양심을 더해 ‘명품’ 탄생

나이스·텍은 쉽고 안전한 나이스워커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쉽고 안전한 보행차에서 나아가 고급스러운 까지 더하기 위해 품질이 나쁘고 불품없는 원자재는 쓰지 않는 것. 그야말로 뛰어난 기술에 아름다운 양심을 입힌 셈이다. 이 결과 나이스·텍에 행운이 찾아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는 복지용구 품목으로 나이스워커 보행차와 보행보조차

나이스·텍의 대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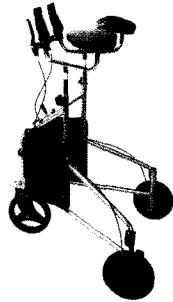
● 나이스워커 보행차 3AE

손잡이는 물론 팔걸이가 있어서 사용자의 체중을 받쳐주므로 척추나 관절 이상 등 중증 환자도 사용할 수 있다. 바퀴의 지름이 크고 보조 바퀴를 장착할 수 있으며 브레이크장치가 있어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자식 자동속도제한 장치와 후진속도저감 장치 등 첨단 안전 장치가 장착된 보행차.

적정신장과 체중: 150cm~180cm, 80kg 이하

주차브레이크: 한지핀 방식

속도조절: 중립, 저속(6단계)



● 나이스워커 보행보조차 4SE

안정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좌우 접이 방식으로 좁은 통로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보행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 기능이 있고 운반과 보관이 편리하다. 전자식 자동속도제한 장치와 후진속도저감 장치 등 첨단 안전 장치가 장착된 최고급형 보행 보조차.

적정신장과 체중: 150cm~180cm, 80kg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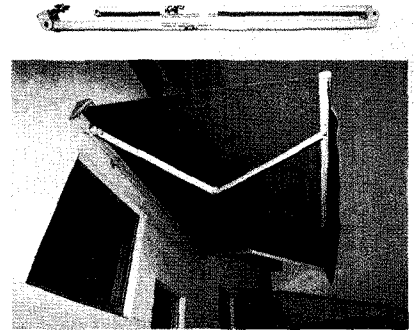
주차브레이크: 한지핀 방식

속도조절: 중립, 저속(6단계)



● 어닝(Awning) 프레임

핸들을 사용하여 어닝을 개폐하는 수동방식과 원추모터를 장착해 전동으로 어닝을 개폐할 수 있는 전동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타사 어닝 프레임보다 긴 수명이 가장 큰 장점이며, 레스토랑, 호텔, 전원주택, 의류매장, 고속도로 요금정산소 등에 설치하는 어닝에 사용되고 있다.



가 선택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나이스워커 보행차와 보행보조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게 된 후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더불어 나이스·텍은 국내외 실버산업, 복지용구 관련 전시회에 나이스워커 제품들을 출품해 시장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열린 HCR 복지기기전에서 '감동적 제품'이라는 찬사까지 듣고 왔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들은 나이스·텍 전 직원이 합심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연구개발을 거듭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R&D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뒤처지지 않고, 더 좋은 명품 나이스워커 보행차를 만들기 위해서 R&D분야의 비중을 더 높여갈 예정입니다." 김성운 대표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나이스워커 제품 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용구 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한다.

— 오래가는 어닝(Awning) 프레임 효자 노릇 톡톡히!

나이스·텍은 나이스워커 보행차, 보행보조차와 함께 건물의 입구나 창문에 부착하여 햇빛과 비를 가리는 어닝 제작에 쓰이는 프레임을 제작하고 있다. 개폐가 자유롭고 별도의 지지대 없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어서 최근 급속히 보급된 설비인 어닝을 설치할 때는 접었다가 펴는 역할을 하는 어닝 프레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이스·텍의 어닝 프레임은 보행차와 보행보조차 못지않게 그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어닝 프레임의 수명은 몇 번을 접었다가 펴도 버티느냐에 따라 그 품질이 결정되는데, 나이스·텍의 어닝 프레임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기술 개발을 거쳐 보다 오래가는 내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소량이지만 국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 어닝 프레임은 나이스·텍의 효자 상품이다.

끊임없는 노력만이 고객에게 사랑받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단 한 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나이스·텍 임직원들, '명품' 복지용구 전문기업을 꿈꾸는 그들의 모습에서 좀 더 나은 삶에 만족하는 노약자들의 밝은 웃음이 겹쳐진다.